

# 산청군, 생비량면 방화지구 새뜰사업 완료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12.19 21:30

21억 투입 방화마을회관 신축 등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산청군이 19일 생비량면 방화마을 마을회관에서 '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했다. 사진은 준공식 모습.

산청군이 '생비량면 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생비량면 방화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건립, 지역민 화합과 교류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 중심부에 흉물로 방치된 공동창고를 철거하고 공동작업장을 신축했다.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주택정비, 재래식 화장실과 노후·불량담장 정비, CCTV와 소화전 설치,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민 편의증진에 한몫했다.

이날 군은 생비량면 방화마을 마을회관에서 이승화 군수와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생비량면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다.

이재호 방화마을 추진위원장은 "이번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도 따랐지만 모든 지역민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덕분에 사업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화 군수는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 안전 확보와 마을경관이 개선돼 무척 기쁘다"며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지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